

'방심'이라는 불씨에 하루 평균 5건 불났다

광주·전남 올 화재 796건 중 절반이 부주의로 발생 원인 1위, 광주 '담배꽂초 투기'·전남 '쓰레기 소각'

광주·전남에서 담배꽂초 투기나 쓰레기 소각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하루에 5건 넘게 발생해 부상자와 수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전남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총 448건(광주 73건, 전남 37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에 발생한 화재는 총 796건(광주 155건, 전남 641건)이었다. 전체 화재의 56.2%가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5명이 부상을 당했고 20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부주의 화재는 담배꽂초 투기, 쓰레기 소각, 가연물 근접방치, 논·밭 태우기, 전기기기 등 사용 부주의, 음식물 조리시 화원관리부주의 등 일상 속 사소한 실수로 발생하는 화재를 일컫는다.

봄철 부주의 화재가 전체 화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는 무심코 버린 담배꽂초나 쓰레기 소각하다가 된 불씨가 계절적 특성인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와 만나면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올해 발생한 전체 부주의 화재(73건)

중 34%(25건)는 담배꽂초가 원인이었다.

지난 6일 새벽 5시께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피우고 버린 담배꽂초 때문에 1층 베란다까지 불이 번졌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들이 한밤중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같은 날 밤 9시 40분께 광산구 월전동의 한 원룸 다용도실에서 주민이 피우다 버린 담배꽂초의 불씨가 쓰레기에 옮겨 붙었다. 다행히 두 화재 모두 큰 인명부는 없었다.

담배꽂초로 인한 화재로 발생한 재산피해만 1900여만원에 달했다. 광주지역에서 부주의 화재의 두 번째 원인은 전기기기 등의 사용·설치 부주의(13건)이고, 음식물 조리중 부주의(12건), 불씨 화원 방치(10건) 등의 순이었다.

음식물 조리 중 1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광주와는 달리 전남에서는 쓰레기 소각(97건)이 부주의 화재 전체 375건의 25.8%를 차지했다.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이 기간 2명이 다쳤고 3억 2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7일에는 순천시 별량면에서 인근 주민이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씨가 튀어 산불로 번졌다. 이 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진화에 3시간



봄철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산불진화 합동훈련이 27일 오전 광주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 총장사 일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광주시와 서부지방산림청, 북구청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김진수 기자 jeans@

이나 걸렸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영광군 범성면에서 전날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불씨가 100여개의 '곤포사일리지'(원형 벚집)로 번졌다. 이후 불은 인근 주택으로 번져 주방을 전소 시켰다.

이외에도 전남에서는 불씨불꽃 화원 방치(66건), 담배꽂초 투기(53건), 전기기기 등 사용

·설치 부주의(47건) 순으로 부주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 부주의가 원인이 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hey1@

우리 함께 떠납시다 '동구 오월 기억 여행'

온라인·전화 사전 예약제 운영 4월 6일~5월 25일 매주 토요일

광주시 동구는 '동구의 오월 기억 여행'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오월기억여행은 오는 4월 6일부터 5월 25일 까지(5월 18일 제외)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투어 프로그램이다.

5월 해설사를 통해 5·18 이야기를 들으며 5·18민주광장과 전일빌딩245, 국립5·18 민주묘지 등 도심 속 민주화운동 역사 유적지를 버스 순회하고 동구 인문학당에서 주먹밥 만들기, 5·18 소통의 시간 등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1회당 참여 인원은 최대 40명이다.

참가비는 버스 탑승료·주먹밥·현화 체험비를 포함해 9000원이며 미취학 아동은 무료다.

투어 도중 참여할 수 있는 SNS 홍보 이벤트를 통해 동명동 카페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권 쿠폰도 제공한다.

투어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네이버소풍 온라인 예약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0507-1466-0095) 예약도 받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18 조사보고서 폐기 촉구 잇따라

오월대책위·민변 등 강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조사보고서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오월정신지킴이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오월대책위)는 27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월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오월 정신을 능멸한 진상조사위 개별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

했다.

오월대책위는 "진상조사위는 오는 31일까지 개별보고서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면 종합보고서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의견 반영조차 힘든 구조와 조건을 갖고 있다"며 "종합보고서는 각 개별보고서의 요약 보고서일 뿐이다 개별 보고서의 기록을 근본적으로 넘어서 수 없으며, 수정 의견이 반영돼도 개별보고서 및 조사 진술 자료 자체는 폐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보고서 수정은 진상조사위 전위원회

회가 전원의합의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수정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진상조사위는 지금 당장 종합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광주시민 및 정치인들은 총선 전 진조위 보고서의 폐기를 위한 긴급 법안처리를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등이 보고서 일부 폐기를 요구하는 등 광주 시민사회에서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진상조사위의 조사보고서는 진상조사위의 그동안 조사 내용을 결산하는 것으로, 사실상 국가가 공인하는 5·18 진상보고서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전남 대학가 알바 시급 '짜다'

광주 '1만520원'으로 전국 12위... '1만149원' 전남 16위

광주·전남의 대학가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서 자체 구인구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개강 시즌을 맞은 울



전국 대학가 알바 공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커피전문점(11.5%), 편의점(11.4%), 패스트푸드(5.7%), 캐시·카운터(4.1%) 순으로 알바공고

해 광주·전남 지역 대학가 한달 알바 평균 시급은 각각 1만 520원, 1만 149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가 모두 지난해 알바 평균 시급보다 각각 1.7%(지난해 1만 349원)과 2.5%(지난해 1만 160원) 올랐지만, 전국 17개 지자체 알바 평균 시급 순위에서는 각 12위와 16위를 기록했다.

알바비 시급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대학가로 1만 1045원이었고, 울산(1만 975원), 세종(1만 930원), 경기(1만 903원) 순이었다. 대학가 알바 공고수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서울, 부산 대구 순이었다. 광주지역 대학가가 10번째 전남지역 대학가가 12번째로 알바공고 수가 많았다.

많은 점에서 주로 외식·음료, 서비스, 유통·판매 업종의 구인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바천국은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광주·전남 대학가의 낮은 알바비는 지역경제의 불황의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지역경제가 활발하면 선순환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특이 높아 알바비도 높게 책정되지만, 광주·전남의 지역경제의 극심한 침체로 알바 시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면서 "특히 총장로와 전남대 후문, 상무지구 등 광주지역 주요 상권에 공실이 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교육청, 시정조치 미이행 사학법인 체계적 제재 기준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했다.

27일 광주시교육청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최근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제재 처분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준안은 관할청의 감사처분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미이행한 사학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기준안에 구체적 제재방안을 담았다. 비위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미이행 시 비위

내용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학기관 행·재정제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재수위를 교육감이 결정하는 내용이다. 행위별 제재 점수와 처분기준 등도 구체화했다.

행·재정 제재 종류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학급수 감축 및 입학정원 조정, 과태료 부과,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중지, 시설비 지원 중지 등이 해당되며, 제재기간은 최대 3년 이하로 하되 제재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가 교육청의 시정·변경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행하지 않

으면, 교육청이 법령위반행위 취소·정지, 학생정원·학급·학과 감축·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사학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제재 대상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타학교와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을 환영한다"며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